

『광장』의 문학교과서 수록 양상 연구

김 영 애*

요 약

본고는 2011 개정 문학교과서 분석을 통해 『광장』이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양상을 분석하여 그에 내포된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고는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광장』 판본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현행 문학교과서 중 『광장』이 수록된 7종 교과서는 1976년 문학교과지성사 출간본 이후의 판본 중 하나를 특별한 기준 없이 수록하고 있거나, 전집본이 아닌 편집본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교과서가 작가본이 아닌 편집본을 텍스트로 선정한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광장』의 개작과 관련된 서지 정보를 확인하고, 각 교과서에 수록된 텍스트의 판본을 비교 분석하여, 『광장』의 개작과 판본 문제가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전모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배경지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또한 본고는 부분 수록 텍스트와 대단원 및 학습 목표의 유기적 상관성을 검토하여 문학교육에서 『광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대단원과 수록 지문의 유기성 문제는 『광장』이 문학교육 제재로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실제 각 교과서의 대단원 및 학습목표와 수록 작품 및 지문 사이의 유기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사이의 유기적 상관성을 고려한 작품, 지문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대단원이 포괄하는 명제에 부합하는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이 신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고려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주제어: 광장, 최인훈, 문학교육, 문학교과서, 판본, 개작, 대단원, 학습목표

목차

1. 선행연구 검토와 문제제기
2. 문학교과서 수록 『광장』의 판본
3. 학습 목표와 수록 지문의 유기성
4. 결론

1. 선행연구 검토와 문제제기

장편소설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광장』은 지금까지 반복적, 압도적으로 문학교육 정전으로서의 위치를 지켜왔다. 현행 문학교과서 역시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광장』은 현행 문학교과서 11종 가운데 7종에 수록되어 있다.¹⁾ 본고는 현행 문학교과서 분석을 통해 『광장』이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양상을 분석하여 그에 내포된 문제를 지적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판본, 수록 지문과 학습목표와의 유기적 연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본고는 『광장』의 개작과 관련된 서지 정보를 확인하고, 각 교과서에 수록된 텍스트의 판본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광장』이 열한 차례 개작된 사실은 학습자들이 이 텍스트의 진모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배경지식

1) 『광장』이 수록된 문학교과서는 비상(우한용), 비상(한철우), 천재교육(정재찬), 천재교육(김윤식), 지학사(권영민), 해냄에듀, 상문출판사, 창비(박종호), 동아출판(김창원) 등 9종이고 이중 창비(박종호), 동아출판 교과서에는 본문이 아닌 부록('작품 더 읽기') 수준으로 수록되었다. 본고는 2011 개정 문학 교과서에 본문으로 수록된 7종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다. 그러나 『광장』이 오랫동안 교과서 정전의 위치를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록 텍스트의 판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고는 부분 수록 텍스트와 학습 목표의 상관성을 검토하여 문학교육에서 『광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²⁾

이종섭의 연구는 본고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했다. 그에 의하면, 『광장』은 7차 개정 문학교과서 18종 가운데 가장 많은 14종에 수록되었다. 그는 단원, 학습목표, 수록 판본 등을 중심으로 『광장』의 문학교과서 수록 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개별성 지향의 관점을 표방한 대단원에 『광장』이 수록되어 있다. 즉 한국문학의 역사적인 흐름을 개괄하는 단원이나 소설의 주제를 학습하는 단원에서 이 작품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학습목표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드러난다. 작품의 문학사적 위치, 작품에 반영된 현실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설정한 교과서가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그는 당시 대부분의 교과서가 1976년 개정본을 수록하고 있으며, 특정 장면이 반복 수록되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했다. 그는 1976년 문학과지성사 출간본이 작품의 주제 측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개작이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이 판본이 대부분 『광장』의 결정판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

2) 『광장』을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고찰한 논의로 이종섭의 「장편소설의 교과서 수용 방안 연구: 최인훈의 『광장』을 예로 들어」(『중등교육연구』 57권1호,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2009), 이숙자의 「독자반응비평이론을 적용한 학습자 중심의 소설교육 방법 연구」(공주대 석사논문, 2003), 구연수의 「소설 수용 교육 방법 연구: 최인훈의 『광장』을 중심으로」(한국외대 석사논문, 2010), 박은수의 「『광장』의 문학교육적 적용 양상: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수원대 석사논문, 2003), 김용균의 「『광장』의 문학교육적 가치와 교과서 수용 현황 연구」(경희대 석사논문, 2013), 안성희의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장편소설의 교수 학습 방법 연구: 최인훈의 『광장』을 중심으로」(부산외대 석사논문, 2004), 김들림의 「2011 개정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단원구성 및 학습활동 연구: 최인훈의 『광장』을 중심으로」(고려대 석사논문, 2018) 등이 있다.

문학교과서에도 이 판본이 다수 수록된 것이라 보았다.³⁾

부분 수록 문제에 관해서는 특정 장면이나 서사의 반복 수록이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김동환은 부분 수록에 대해 ‘지면상의 제약’, ‘부적절한 부분의 제외’, ‘학습 목표’ 등에 따라 교과서 수록 소설 장르 대부분이 텍스트의 일부분만을 제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부분 수록 문제에 대해 그는 학습자들이 작품 전체에 대한 정보를 줄거리나 요약적 설명에 의해 얻게 되므로, 작품 일부를 ‘언어자료’로서만 활용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⁴⁾ 정재림은 부분 수록이 “작품의 감상과 수용을 일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췌 수록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의미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⁵⁾ 『광장』의 경우 문학교과서에 가장 빈번하게 수록되는 서사는 이명준이 포로생활을 마치고 중립국을 선택하는 부분이다. 뒤에 자세히 살펴 보겠지만, 이 장면은 7종 교과서 중 6종에 수록되어 있다. 아마도 이 장면과 서사가 지니는 상징성이 작품의 주제를 제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과서가 『광장』의 특정 서사를 확일적으로 수록한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듯 이러한 수록 방식은 작품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미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3) 이종섭, 『장편소설의 교과서 수용 방안 연구: 최인훈의 『광장』을 예로 들어』, 『중등교육연구』 57권1호,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2009, 74-83면. 이 글에서 그는 장편소설을 문학교육에 수용할 때 필요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통합성의 관점에서 개별성과 보편성을 통합하는 교육의 필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자 변인의 관점에서 텍스트의 어떤 부분을 선택하는 방식의 필요성이다. 이 글에서 그는 『광장』의 개작 횟수를 ‘5회’로 잘못 표기했다.

4) 김동환, 『국어과 교과서의 문학 제재와 관련된 쟁점과 제안』, 『국어교육학연구』 47, 2013, 59면.

5) 정재림, 『교과서 제재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49,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197-203면.

문제이다.⁶⁾

본고는 문학교과서의 단원 및 학습목표, 학습활동과 수록 지문의 관련성 문제와 더불어, 수록 판본 문제를 함께 고찰하여 구체적으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한다. 『광장』은 판본에 따라 주제나 표현에 차이가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어떤 판본을 교과서 텍스트로 선택했는가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작품의 개작 관련 정보를 함께 설명하지 않는다면 학습자들이 작품을 잘못 이해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광장』의 문학교과서 수록 판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분 수록 문제는 특정 장면만을 제시하여 작품에 대한 편파적 이해, 혹은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시 심층적인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2011 개정 문학교과서 중 『광장』이 수록된 7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문학교과서 수록 『광장』의 판본

김동환에 따르면, 교과서 제재 텍스트는 크게 ‘작가본’, ‘편집본’, ‘교과서본’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작가본’이란 “해당 작품이 처음 발표된 잡지나 창작집에 실린 초본과 그 뒤 다른 작품집에 실으면서

6) 『만세전』의 교과서 수록 양상을 고찰한 류동규의 논의(『문학교육 정전으로서의 『만세전』 텍스트 다시 읽기』, 『국어교육연구』62, 국어교육학회, 2016, 312-314면) 역시 “판본 및 수록 장면이 고정 반복되어 온 것은 문학 교과서가 『만세전』 텍스트를 식민지 시대 민족 현실을 그린 리얼리즘 소설로 해석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읽기 방식에 따르면 작품에 제시된 사건은 민족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그리고 이 사건을 겪는 주인공은 민족 주체로 변모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의 방향이 고정된다.”고 지적하며, 정전화가 불러온 고정된 읽기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작가 자신이 수정을 가한 수정본”으로 나눌 수 있다. ‘편집본’은 “특정 출판사가 작가의 선집이나 전집을 간행하면서 나름의 기준이나 원칙에 의해 수정을 하되 작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교과서본’은 “교과서 편찬자에 의해 삭제 등의 부분적인 수정이 가해지는 경우”이다. 어떤 텍스트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으로 그는 ‘작가본’ 중 저작성이 투명한 ‘초본’을 수록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적 효용성이 높다고 보고, 때에 따라 ‘초본’과 ‘개작본’ 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교과서 제재로 ‘초본’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로 첫째, “그것이 당대 언어문화의 양상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이며 둘째, “초본과 그 이후의 판본들, 즉 개작본이나 의미 있는 교열본(전집 등) 간의 편차를 통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⁷⁾

『광장』의 문학교과서 수록 판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의 개작 관련 서지사항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지하듯 『광장』은 1960년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열 차례 개작이 이루어진 작품이다. 따라서 어떤 판본을 수록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의미와 주제가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많은 논자들이 지적한 부분은 1976년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한 『최인훈전집』 수록 판본과 이전 판본과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이 차이는 ‘갈매기’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주제적인 변모를 보이는 것으로 수렴된다. 『광장』은

7) 김동환, 앞의 논문, 54-56면. 이 글에서 그는 황순원의 『소나기』를 대상으로 작가본과 편집본, 교과서본의 차이를 제시하면서 “교과서 제재의 선택에 전략적 이면서 제한적인 맥락이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성과 죽음, 이데올로기 등의 금기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지만 누구도 문제적이라 동의할 수 있을 정도라면 해당 작품이나 장면을 피해 가더라도 편찬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거나 변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작품이 단순히 내용적 측면 중심의 감상 대상으로만 머물게 되고 “작가라는 개인의 창의적 결과물에 대한 예우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발표 이후 아래와 같이 열한 가지 판본으로 열 차례 개작되었고, 이들 중 주제 변모 등으로 확장될 만한 수준의 대폭적인 개작이 이루어진 것은 1976년 문학과지성사 초판과 2010년 7판이다. 최인훈이 1961년 정향사본 후기에서 밝힌 내용은 『새벽』에 발표한 원고 중 200매 정도가 당시 잡지사 사정으로 실리지 못했고, 정향사본에서 초판본에 누락된 부분을 함께 수록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광장』의 정본을 새벽본이 아닌 정향사본으로 간주해왔다고 밝혔다.⁸⁾

1. 『새벽』(1960.11)
2. 정향사본(1961.2)
3. 신구문화사본(1968.1)
4. 민음사본(1973.7)
5. 문학과지성사 초판(1976.8)
6. 문학과지성사 재판(1989.4)
7. 문학과지성사 3판(1994.8)
8. 문학과지성사 4판(1996.11)
9. 문학과지성사 5판(2001.4)

8) 『광장』 개작에 관한 서지적인 측면은 최윤경의 『『광장』 개작의 의의: 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정리된 내용을 참고했다. 이 논문에서 정리한 바에 의하면 『광장』 개작의 주요 국면은 다음과 같다. 정향사본에서 괄호로 병기했던 한자가 사라지고, 영어가 우리말로 바뀌는 등 부분적인 개작에서부터 시작해, 문학과지성사 초판에 이르러서는 “같은 문장 하나를 발견하기가 어렵다.”(김인호, 『『광장』 개작에 나타난 변화의 양상들』, 『해체와 저항의 서사』, 문학과지성사, 2004, 124-125면)고 할 만큼 문장의 대폭 수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판본에서 ‘갈매기’의 표상이 달라지는 등 내용과 주제 면에서도 상당한 변모가 드러났다. 문학과지성사 재판에 오면 ‘불세비즘’이 ‘스탈리니즘’으로 바뀌는 등 일부 용어의 수정이 이루어졌고, 가로쓰기로 전환되었다. 문학과지성사 3판에서는 이명준이 포로수용소에서 유엔군 측 대표자들과 면담하는 장면을 ‘상상’으로 처리했다. 이후 문학과지성사 6판까지 부분적인 개작이 이루어졌고, 현재로서 마지막 판본인 문학과지성사 7판에서는 실제 사건이 꿈으로 처리되며 이명준의 자기성찰이 장황하게 추가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개작이 이루어진 판본은 1976년 문학과지성사 초판과 2010년 7판이다. 최윤경, 『『광장』 개작의 의의: 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현대문학이론연구』59,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356-359면.

10. 문학과지성사 6판(2008.11)
 11. 문학과지성사 7판(2010.5)

『광장』의 판본 문제는 이미 이종섭 등에 의해 논의된 바가 있다. 그러나 이 논의는 7차 개정 교과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2010년까지 이루어진 개작 양상과 현행 교과서 수록 양상에 대한 검토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본고는 이종섭의 논의를 참고하여 2011 개정 문학교과서 가운데 『광장』이 수록된 7종을 중심으로 텍스트의 판본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각 교과서 말미에 부록으로 제시한 ‘출처’에 따라 수록 판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

출판사	수록 판본	비고
비상(우한용)	문학과지성사, 2010	
비상(한철우)	『최인훈 전집』1, 문학과지성사, 2008	
천재교육(정재찬)	『최인훈 전집』1, 문학과지성사, 2012	본문 말미 ‘<새벽>(1960)’ 표기
천재교육(김윤식)	‘한국소설문학대계’42, 동아출판사, 1995	본문 말미 ‘새벽’ 표기
지학사(권영민)	‘한국소설문학대계’42, 동아출판사, 1995	본문 말미 ‘<새벽>(1960)/ 최인훈 전집1(1994)’ 표기, 지도서에 문학과지성사 3판 표기 및 개작 관련 설명 부기
해냄에듀	‘한국소설문학대계’42, 동아출판사, 1995	
상문출판사	‘한국소설문학대계’42, 동아출판사, 1995	

문학교과서 수록 『광장』 판본은 이와 같이 크게 문학과지성사 전

9) 참고로 ‘작품 더 읽기’ 형식으로 수록한 것 중 창비(박종호) 교과서는 문학과지성사 2010년 판본을, 동아출판 교과서는 문학과지성사 2008년 판본을 실었다.

집본을 수록한 3종과, 1995년 동아출판사 ‘한국소설문학대계’본을 수록한 4종으로 양분된다. 문학과지성사 전집본을 수록한 경우에는 2008년본, 2010년본, 2012년본 등으로 차이가 있다. 천재교육(정재찬) 교과서는 문학과지성사 2012년 판본을 출처로 표기했으나, 이는 부정확한 기술이다. 왜냐하면 현재 『광장』의 최종 개작본은 문학과지성사 2010년 판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판본 기술 원칙에 따라 ‘문학과지성사, 2010년’으로 표기하는 것이 정확하다. 비상(우한용) 교과서는 문학과지성사 2010년 최종본을 텍스트로 수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가에 의해 개작된 마지막 판본이라는 의미에서 교과서 수록 텍스트로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전집본 중 최종본이 아닌 판본을 수록한 비상(한철우) 교과서의 경우 문학과지성사 2008년본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본 선택 기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좀 더 심각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교과서는 나머지 4종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동아출판사 ‘한국소설문학대계’본을 수록했다고 밝히고 있다. 먼저 지학사(권영민) 교과서에는 텍스트 판본에 대한 오인을 유도하는 표기가 있다. 이 교과서 지문 말미에는 이 작품의 출처를 ‘『새벽』(1960)’으로 표기했다. 이는 교과서 수록 판본이 『광장』 초판본임을 의미하는 표지처럼 읽힌다. 이종섭에 따르면 7차 개정 문학교과서 수록 판본 대부분은 1976년 문학과지성사 초판이며, 당시 지학사(권영민) 교과서 역시 동일 판본이라 소개했다. 7차 수록본과 2011 개정 수록본이 상이한 상황에서, 이 교과서가 기존 수록 판본을 재수록하거나 최종 개작본을 수록하지 않고 초판을 수록한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매우 지엽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는 판본 간 차이에 대한 진전된 인식을 보여주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학교육에서 개작의 문제, 나아가 판본 간 차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행위이기도 하

다. 그러나 이 교과서나 지도서에는 『광장』의 개작이나 초판본에 관한 언급이나 설명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설명 없이 무작정 출처를 ‘〈새벽〉 1960’이라 명기하는 것이 어떤 교육적 효과를 파생시킬 수 있으며, 작품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이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에는 1961년 판 저자 서문이 게재되어 있다. 이는 정향사본에 수록된 서문 일부인데, 지문은 초판본으로, 저자 서문은 다른 판본에서 가져오는 방식은 텍스트 이해의 일관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실제 이 교과서에 수록된 판본이 1960년 ‘새벽판’이 아니라, 1995년 동아출판사 ‘한국소설문학대계’본이라는 사실도 문제적이다. 물론 이 교과서의 지문 말미에 ‘〈새벽〉 1960’이라 표기한 것이 실제 출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발표 당시의 서지사항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학습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이러한 표기의 혼란은 불필요한 오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작가본이 아닌 편집본을 수록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아출판사 ‘한국소설문학대계’본은 이른바 ‘정본’의 계보에 속하는 판본이 아니다. 이 작품의 갖은 개작과 각 판본 간 차이를 인지했다면, 최소한 ‘정본’의 계보에 속하는 작가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윤식 편 천재교육 교과서 역시 수록 지문 말미에 ‘새벽’이라는 출처 표기가 있다. 그러나 이 교과서에 수록된 판본 역시 초판인 새벽판이 아니라, 1995년 동아출판사 ‘한국소설문학대계’본이다. 이 역시 실제 출처가 아니라 작품의 최초 발표 지면을 표기한 것으로 보이며, 지학사(권영민)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에게 불필요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수록 텍스트가 작가본이 아닌 편집본이라는 점 또한 이 작품의 개작 상황과 판본에 대한 인식 부재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해냄 에듀 교과서 지도서에는 수록 작품의 판본과 개작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각 판본 간 차이와 개작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첨부된 것으로는 이 교과서가 유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먼저 이 교과서는 ‘작품 선정의 이유’¹⁰⁾에서 ‘전집판(문학과 지성사 전집의 제3판)’을 수록 텍스트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판본이 ‘가장 두드러진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장』 판본 중 가장 두드러진 개작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판본은 문학과지성사 출간 1976년 판본과 2010년 판본이다.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된 일곱 개의 판본은 ‘전집본’이라 통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별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은 전집본들 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제 이 교과서 수록 텍스트는 1994년 문학과지성사 출간본이 아니라, 1995년 동아출판사 ‘한국소설문학대계’본이다. 즉 수록 판본에 대한 설명과 실제 수록 판본이 다른 것이다. 부록에서 제시한 실제 출처와 ‘작품 선정의 이유’에서 밝힌 판본이 다르다는 사실은 지학사(권영민)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 교과서는 『광장』의 개작과 각 판본들 간의 차이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판본에 대한 정밀한 인식이 부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역시 작가본이 아닌 편집본을 수록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10)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넘어서서 제3의 길을 모색한 분단 시대의 역작으로, 한 비평가가 ‘광장’이 출간된 1960년을 “광장의 해”라고 명명할 정도로 문학성을 인정받는 작품이다. 이 작품을 통해 해방 이후 한국 소설의 문학적 성취와 더불어, 사회 역사적 현실이 문학 작품에 투영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광장’은 최초 발표 이래 수차례 개작된 것으로도 유명하다. 가장 두드러진 개작이 이루어진 것은 ‘문학과 지성사’의 전집판이다. 따라서 교과서에서는 전집판(문학과 지성사 전집의 제3판)을 텍스트로 삼았다.” 『문학』, 해냄에듀, 2014, 273면.

문학사 교육의 측면에서는 김동환의 지적처럼 최초 발표본인 ‘초본’을 텍스트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광장』의 문학사적 의의와 가치를 탐구하는 학습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응당 1960년대라는 창작 시기를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창작 배경과 작품의 의미를 연결 짓기 위해서는 『광장』이 1960년대 사회문화적 변화를 수용한 새로운 작품이라는 문학사적 평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반면, 현재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교육 텍스트라는 측면에서는 최종 개작본을 수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다. 10회에 걸친 개작은 이 작품에 대한 작가의 애착이 얼마나 집요한가를 말해준다. 작가에 의해 최종적으로 수정된 판본이 완성본이라면 결국 2010년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된 마지막 판본이 완성본이 된다. 시대 변화와 작가의식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작이 이루어져왔음을 감안하면 최종본이 교과서 수록 텍스트로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의 수정이나, 한자어를 한글표기로 바꾼 것 등은 시대 변화를 의식한 개작이라 할 수 있고, ‘갈매기’의 상징 변화를 통해 주제를 수정한 것은 작가의식의 변모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문학교과서 가운데 『광장』 초판본을 수록한 것은 하나도 없다. 최종 개작본인 2010년 문학과지성사본을 수록한 것은 비상(우한용) 교과서뿐이다. 나머지 6종은 1976년 문학과지성사 출간본 이후의 판본 중 하나를 특별한 기준 없이 수록하고 있거나, 전집본이 아닌 편집본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 편집 주체들이 『광장』의 개작과 각 판본들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무감각했거나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양상은 『광장』이라는 텍스트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문학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¹¹⁾

3. 학습 목표와 수록 지문의 유기성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광장』 텍스트는 문학과지성사 3판(1994) 이후의 판본을 선정하여 그 중 특정 부분을 지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7차 개정 당시 문학교과서 14종에 수록된 판본이 대부분 문학과지성사 초판(1976)인 사실과 비교할 때 눈에 띄게 달라진 지점이다. 문학교과서에 가장 빈번하게 수용된 『광장』의 서사는 이명준이 포로생활을 마치고 중립국을 선택하는 부분이다. 이 장면은 7종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발췌 수록되었다. 이 장면과 서사가 지니는 상징성이 작품의 주제를 제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과서가 ‘중립국 선택’ 서사를 수록한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부분 수록이 작품 감상과 수용을 획일화시키거나 의미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은 이미 많은 논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또한 작품에 대한 총체적 이해보다 특정 장면만을 부각해 학습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광장』의 학습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전쟁과 분단이라는 한국사적 배경과 작품의 의미를 관련지어 분석하는 것이다. 다음은 7차 개정 문학교과서 수록 『광장』의 수용 현황과 현행 문학교과서 수록 『광장』의 수용 현황의 비교이다.

11)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광장』이 대단원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 ‘한국문학의 흐름’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출판사	수록 부분	대단원명	학습목표와 연관된 학습내용	입력 판본
민중서림	중립국 선택 장면 중립국에서의 생활을 상 상하는 장면	한 국 문 학 의 특질과 흐름 (광복 이후의 문학)	작품에 반영된 당 대의 현실적 상황 이해하기	1976년 개정 본
지학사 (권영민)	중립국으로 가는 배에서 선장과 대화하는 장면(제 일 첫 장면)	한 국 문 학 의 특질과 흐름 (광복 이후의 문학)	작품에 나타난 주 인공의 갈등과 고 뇌 이해하기 분단 상황에 대한 작가의 의식 이해 하기	밝히지 않음 (1976년 개 정본이 확 실)
문원각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는 장면 갈매기와 부채에 대한 상 념 장면(제일 마지막 장 면)	문학과 삶(역 사 앞에서)	작품에 나타난 역 사적 현실 이해하 기 역사적 현실 속 에서 살아간 인물의 행동 이해하기	1976년 개정 본
청문각	중립국을 선택하는 장면 중립국에서의 삶을 상상 하는 장면 부채에 대한 상념 장면 (제일 마지막 장면)	한 국 문 학 의 흐름과 전통 (광복 이후의 문학)	주인공의 의식과 심리 상태 이해하 기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 이해하기	1976년 개정 본
중앙 교 육 진 흥 연 구 소	정 선생에게 남한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	한 국 문 학 의 흐름(광복 이 후의 문학)	작품에 반영된 이 데올로기 파악하 기	1976년 개정 본 (뚜렷 이 밝히고 있지 는 않음)
교학사 (김대행)	갈매기와 부채에 대한 상 념 장면(제일 마지막 장 면)	한국현대문학 의 전개(분단 과 산업화 시 대의 문학)	작품의 문학사적 위치 이해하기 작품에 반영된 정 치 현실적인 문제 파악하기	1989년 개정 본
케이스	수용소에서 남한과 북한 사회에 대해 생각하는 장 면 중립국을 선택하는 장면	문학의 수용 과 창작(갈래 별-서사의 세 계-제제와 주 제)	작품의 제재와 주 제 파악하기	최인훈 전집 (1976년판?)
태성	중립국 선택 장면 중립국에서의 삶을 상상 하는 장면	한 국 문 학 의 흐름(광복 이 후의 문학)	작품에 반영된 당 대의 현실과 주인 공의 삶의 자세 파 악하기	밝히지 않음

형설출판사	중립국 선택 장면	문학의 흐름 (1960년대 이후 산업화시대의 문학)	작품에 반영된 남북의 이념적 대립 이해하기 이 작품의 문학사적 위치 이해하기 이 작품에 표현된 작가 정신 이해하기	밝히지 않음
천재교육	수용소에서 남한과 북한 사회에 대해 생각하는 장면 중립국을 선택하는 장면	소설의 수용과 창작(소설의 주제와 갈등)	주인공의 내면적 갈등 파악하기	밝히지 않음
블랙박스	수용소에서 남한과 북한 사회에 대해 생각하는 장면 중립국을 선택하는 장면	문학의 가치와 기능(문학과 가치)	인간의 존재 상황과 관련하여 작품의 주제 파악하기 주인공의 현실 대응방식과 가치관 작품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	1968년 개정본(신구문화사본)
디딤돌	갈매기와 부채에 대한 상념 장면(제일 마지막 장면)	서사문학의 수용과 창작(주제와 갈등)	주제와 주인공의 갈등 해소 과정의 상관관계 파악하기	밝히지 않음
교학사 (구인환)	중립국 선택 장면 중립국에서의 삶을 상상하는 장면 갈매기와 부채에 대한 상념 장면(제일 마지막 장면)	문학의 수용과 창작(문학작품의 주제)	주제, 구조, 맥락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작품의 주제 파악하기	1980년 간행본
금성출판사	수용소에서 남한과 북한 사회에 대해 생각하는 장면 중립국을 선택하는 장면	서사문학의 수용과 창작(소설의 내용과 주제)	뚜렷한 학습내용 없음	밝히지 않음

〈표1〉 7차 개정 문학교과서 『광장』 수록 현황¹²⁾

12) 이종섭, 앞의 논문, 85-86면.

출판사	수록 부분	대단원	학습목표	학습내용	수록 판본
비상 (우한용)	중립국 선택	한국 문학의 특질 /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문학의 특수성을 역사적 배경과 관련지어 생각해본다.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한다.	문학과 지성사, 2010
비상 (한철우)	중립국 선택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 한국 문학의 역사	-광복 이후 문학의 전개 양상을 이해한다. -광복 이후 문학의 갈래별 특성을 시대 상황과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다. -광복 이후의 문학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할 수 있다.	인물이 처한 상황과 인물이 겪는 내적 갈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이 처한 분단 현실을 이해하며 감상해보자.	『최인훈 전집』1, 문학과 지성사, 2008
천재 (정재찬)	중립국 선택	한국 문학의 이해 / 한국 문학과 시대상황	-한국문학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에 나타난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이해한다.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분단의 시대 상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생각하며 읽어보자. -인물의 내적 갈등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파악하며 읽어보자.	『최인훈 전집』1, 문학과 지성사, 2012
천재 (김윤식)	중립국 선택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한국 문학 갈래의 전개와 구형 양상을 통하여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한다.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알아보자.	『한국소설 문학 대계』42, 동아출판사, 1995
지 학 사	중립국 선택	문학과 공동	-문학 활동을 통	-광장과 관련하여	『한국소설

(권영민)	택	체-공동체와 소통하는 문학	해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의식 공유하기 -문학 활동을 통해 공동체와 소통하려는 태도 기르기 -문학 활동을 통해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와 연대 의식 갖기	여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소설 속 인물이 겪는 공동체의 문제와 극복 방법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보자.	문 학 대 계'42, 동아출판사, 1995
해범 에 듀	중립국 선택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서사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을 통하여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한다.	우리 민족의 분단 현실을 생각하며 이 작품을 읽어 보자.	'한국소설 문학 대 계'42, 동아출판사, 1995
상 문 출 판사	중립국 선택 장면 부채에 대한 상념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화와 문학 활동	-문학이 인문, 사회, 예술 등 인접 분야와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하고 작품의 수용과 생산에 능동적으로 활용한다. -다양한 매체의 표현 방식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작품의 수용과 생산에 창의적으로 활용한다.	주인공이 지향한 사회의 모습을 생각하며 읽어보자.	'한국소설 문학 대 계'42, 동아출판사, 1995

〈표2〉 2011 개정 문학교과서 『광장』 수록 현황

두 표의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광장』이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양상과 변모 과정을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표1〉은 이종섭의 논문 부록에 첨부된 자료로, 7차 개정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광장』의 출판사별 특징과 학습목표, 학습내용, 판본 등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2>는 현행 문학교과서 7종에 수록된 사항들을 같은 기준에 따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두 표를 대비적으로 고찰하여 추출할 수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제기한 부분 수록의 문제와 더불어 특정 장면과 서사가 많은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단원과 학습목표, 학습내용과 수록 내용의 연관성 및 유기성이 부족함을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판사별 수록 판본이 전집본, ‘한국소설문학대계’본 등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7차 개정 교과서에서 『광장』이 수록된 14종 가운데 ‘중립국 선택’이라는 서사가 포함된 것은 9종이다. 2011 개정 교과서의 경우 7종 교과서에 『광장』이 실렸고 이들 교과서 전부가 동일 서사를 수록했다. 이는 ‘중립국 선택’ 서사가 『광장』의 주제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인식한 결과이다.

이중섭은 『광장』이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양상 분석에서 특히 ‘지문 수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대단원이나 학습목표에서는 작품이 지닌 개별적인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학습시키기 위해 선정된 지문은 작품의 주제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장면이 대부분”이며, 수록 지문이 “이 소설이 지닌 고유한 미학적 가치의 학습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반영이론에 입각하여 작품 속 현실을 파악해 보게 함으로써 소설 작품을 당대 현실 파악을 위한 자료로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분석했다.¹³⁾ 이명준의 포로 생활, 중립국 선택 과정 등을 수록한 지문은 『광장』의 미학적 가치를 학습하는 데 부적절하며, 이러한 지문 선택은 문학작품을 반영론의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요구한다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반영론적 관점만으로 작품을 해석할 경우 『광장』이라는 텍스트의 특수성이 약화될 수도 있으며, 학습자들의 작품 이해를 제한할 수도 있

13) 이중섭, 앞의 논문, 78-79면.

다.

강진호는 교과서에서 『광장』의 특정 장면이나 서사를 반복적으로 수록해온 경향에 대해 반공이데올로기의 관점으로 분석한 바 있다.¹⁴⁾ 그는 교과서에 수록된 『광장』의 지문이 대부분 제3국을 선택하는 과정을 그린 부분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명준이 북한과 남한의 심사관을 통과하면서 왜 제3국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암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부분 수록으로 원고지 20매 분량의 짧은 지문만이 제시된 탓에 이명준의 중립국 선택이 논리의 뒷받침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문의 선정이 작품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형식주의적인 구색 맞추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며, “『광장』의 문제성은 이데올로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인간의 삶을 전쟁과 분단이라는 사회,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한 데 있다”고 보아, 중립국 선택 과정을 공통적으로 수록한 교과서 지문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논점은 현행 문학교과서 수록 양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특정 지문의 반복 수록이 야기하는 문제를 원론적인 차원에서 지적하기보다는, 단위 학습목표와 수록 지문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비상(한철우), 천재교육(정재찬), 해냄에듀 교과서는 대단원과 학습목표를 역사적, 시대적 상황 이해에 두었다. 반면 비상(우한용), 지학사(권영민), 상문출판사 교과서는 ‘한국문학의 특질-한국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학과 공동체-공동체와 소통하는 문학’, ‘문학의 수용과 생산-문화와 문학활동’와 같은 대단원에 『광장』을 배치하고 있다. 먼저 비상(우한용)

14) 강진호, 『교과서·문학교육·교사: “분단소설”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9, 한국문학교육학회, 2002, 51-52면.

교과서는 주인공 이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하는 장면이 수록되었고, ‘한국문학의 특질-한국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단원에 배치되었다. 이 교과서에는 “한국문학의 특수성을 역사적 배경과 관련지어 생각해보자”라는 학습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상문출판사 교과서에는 이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하는 장면과 부채에 대한 상념에 빠지는 장면이 부분적으로 수록되었다. 이 교과서에서 『광장』은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화와 문학 활동’이라는 대단원에 속해 있다. 또한 학습목표로 “이 작품은 남북의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방황하는 주인공의 고뇌를 다룬 장편소설이다. 주인공이 지향한 사회의 모습을 생각하며 읽어보자”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지학사(권영민) 교과서 역시 주인공이 중립국행을 선택하는 지문이 수록되었고, ‘문학과 공동체-공동체와 소통하는 문학’이라는 대단원 속에 “소설 속 인물이 겪는 공동체의 문제와 극복 방법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보자”라는 학습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본고는 대단원, 학습목표, 학습내용과 수록 지문의 유기성이라는 관점에서 『광장』의 문학교과서 수록 양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대단원과 수록 지문의 유기성 문제는 지학사(권영민), 상문출판사 교과서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광장』이 수록된 대단원은 대체로 ‘한국문학의 역사’, ‘한국문학의 특질’ 등을 살피는 단계에 해당한다. 교과서 해설 역시 이러한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광장』은 대체로 한국문학의 역사나 특질을 보여주는 문학제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과 다르게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나 ‘문학과 공동체’ 등과 같은 대단원에 이 작품을 배치할 경우 다른 해석이나 접근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각 교과서의 학습목표나 학습내용에서 실제로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분단시대 상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인물의 내적 갈등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라는 학습내용과 ‘남과 북으로 분단되

어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라는 학습 내용 사이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는 수록 지문 선택과 마찬가지로 대단원과 수록 작품, 지문 사이의 유기성에 대한 치밀한 고민의 부재를 드러낸 결과라 할 수 있다. 둘 사이의 유기적 상관성을 고려한 작품, 지문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대단원이 표방하는 명제에 부합하는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이 신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4. 결론

『광장』은 오랫동안 교과서 정전의 하나로 그 문학교육 제재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문학교육에서 텍스트의 판본 문제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고는 현행 문학교과서 분석을 통해 『광장』이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양상을 분석하여 그에 내포된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고는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광장』 판본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현행 문학교과서 중 『광장』 초판본을 수록한 것은 하나도 없고, 최종 개작본인 2010년 문학과지성사본을 수록한 것은 비상(우한용) 교과서뿐이었다. 나머지 교과서에는 1976년 문학과지성사 출간본 이후의 판본 중 하나를 특별한 기준 없이 수록하고 있거나, 전집본이 아닌 편집본을 수록했다. 이는 교과서 편집 주체들이 『광장』의 개작과 각 판본들 간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무감각했거나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양상은 『광장』이라는 텍스트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문학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라 판단된다. 특히 다수의 교과서가 작가본이 아닌 편집본을 텍스트로 선

정한 부분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광장』의 개작과 관련된 서지 정보를 확인하고, 각 교과서에 수록된 텍스트의 판본을 비교 분석하여, 『광장』의 개작과 판본 문제가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전모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배경지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또한 본고는 부분 수록 텍스트와 대단원 및 학습 목표의 유기적 상관성을 검토하여 문학교육에서 『광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대단원과 수록 지문의 유기성 문제는 『광장』이 문학교육 제재로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광장』은 ‘한국 문학의 역사나 특질’을 보여주는 문학교육 제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과 다르게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나 ‘문학과 공동체’ 등과 같은 대단원에 이 작품을 배치할 경우 다른 해석이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각 교과서의 학습목표나 학습내용에서 실제로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대단원뿐만 아니라 학습목표 및 내용 등에서도 ‘드러난 차이’를 ‘실제 차이’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는 수록 지문 선택과 마찬가지로 대단원과 수록 작품, 지문 사이의 유기성에 대한 치밀한 고민이 부족했음을 드러낸 결과라 할 수 있다. 둘 사이의 유기적 상관성을 고려한 작품, 지문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대단원이 표방하는 명제에 부합하는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이 신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광장』은 판본에 따라 주제나 표현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어떤 판본을 교과서 텍스트로 선택했는가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작품의 개작 관련 정보를 함께 설명하지 않는다면 학습자들이 작품을 잘못 이해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광장』의 문학교과서 수록 판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으며, 이는 비단 『광장』이라는 개별

작품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본고는 2011 개정 문학교과서 중 『광장』이 수록된 7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그러나 애초 목적과는 다르게 본고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교과서 편집 주체와 학습 주체 간 문학작품 수용에 대한 상이한 입장 차이를 함께 고려하지 못한 데서 파생된 한계로, 이후 문학교육제재의 판본과 수록 양상에 관한 다양한 층위를 포괄한 논의를 통해 적절하고 유효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강진호, 「교과서·문학교육·교사: 분단소설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9, 한국 문학교육학회, 2002, 37-57면.
- 김동환, 「국어과 교과서의 문학 제재와 관련된 쟁점과 제안」, 『국어교육학연구』47, 국어교육학연구소, 2013, 43-67면.
- 김들림, 「2011 개정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단원구성 및 학습활동 연구 : 최인훈의 『광장』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2018, 1-65면.
- 김용균, 「『광장』의 문학교육적 가치와 교과서 수용 현황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2013, 1-69면.
- 구연수, 「소설 수용 교육 방법 연구: 최인훈의 『광장』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석사논문, 2010, 1-89면.
- 류동규, 「문학교육 정진으로서의 『만세전』 텍스트 다시 읽기」, 『국어교육연구』62, 국어교육학회, 2016, 309-336면.
- 박은수, 「『광장』의 문학교육적 적용 양상: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원대 석사논문, 2003, 1-60면.
- 안성희,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장편소설의 교수 학습 방법 연구: 최인훈의 『광장』을 중심으로」, 부산외대 석사논문, 2004, 1-98면.
- 이숙자, 「독자반응비평이론을 적용한 학습자 중심의 소설교육 방법 연구: 최인훈의 『광장』을 중심으로」, 공주대 석사논문, 2003, 1-100면.
- 이종섭, 「장편소설의 교과서 수용 방안 연구: 최인훈의 『광장』을 예로 들어」, 『중등교육연구』 57권1호,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2009, 67-88면.
- 정재림, 「교과서 제재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49,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185-205면.
- 최윤경, 「『광장』 개작의 의의: 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현대문학이론연구』59,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355-382면.

<Abstract>

A consideration the aspects of *the Square* in the literary textbooks

Kim, Young-A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spects of *the Square*(1960) written by Choi Inhun by analyzing the revised literature textbooks in 2011. To do so, this study reviewed the problems with the edition of *the Square* in the literary textbooks.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seven types of textbooks contain one of the editions after the 1976 edition without any specific standards. In particular, many of them contain the selection of compilation edition, and this problem has to be improved urgently. This study checks correct information related to adaptation *the Square* and analyzes the versions of text in each textbook.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adaptations and editions is a very important background knowledge in integrated understanding of this work. In addition,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d how *the Square* was utilized in literary education by reviewing the organic correlation between text and major unit and learning objectives. The questions of the organic correlation of the text and the major unit show how *the Square* is being used as a literary text. The analysis shows that the major unit and learning objectives of each textbook in practice and the consideration of the organic between the work are needed. Also selections of text should be made carefully, considering the major unit



proposal and the learning objectives, content.

Key words: *The square*, Choi Inhun, literary education, literary textbook, edition, adaption, major unit, learning objectives

투 고 일: 2018년 2월 25일 심 사 일: 2018년 2월 26일-3월 7일

게재확정일: 2018년 3월 9일 수정마감일: 2018년 3월 18일